



정준양 회장은 1월 12일 미래창조아카데미 글로벌리더십센터에서 포스코밀리 교육에 입교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고 포스코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당부했다

“변화 이끌 도전적인 인재 되어야”

정준양 회장, 포스코파밀리 신입사원 CEO 특강서 당부

정준양 회장은 포스코파밀리 교육에 입교한 신입사원 대상 특강에서 포스코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1월 12일 미래창조아카데미 글로벌리더십센터에서 열린 CEO 특강에서 정준양 회장은 포스코에 대해 소개하고 철강산업의 향후 전망과 더불어 세계 철강산업 속 포스코의 현 위치를 설명했다.

이날 정준양 회장은 “지금은 배려다임 전환기이고, 우리는 포스코

3.0 경영으로 새로운 신뢰를 이룰 것이다. 포스코 3.0은 창업과 수상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지향한다”며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경영 원경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마인드를 키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준양 회장은 신입사원들이 신뢰와 소통, 당의성을 바탕으로 잘 늘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역

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 노우(known what)을 잘 알아야 하며,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자체 대 리더는 능 중부를 개울라하지 말아야 하고 노하우를 잘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사에서 진정하고 있는 트리즈·캠퍼스 등을 통해 문(文)·리(理)를 아우르는 통합역량을 배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전적인 사람이 필요하며 신입사원들이 당의 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회사생활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 미래창조아카데미 글로벌리더십센터는 1월 2일부터 19일까지 3주 일정으로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박세일 sseil@posco.com
[자료=미래창조아카데미]

사회공헌 우수 포스코파밀리 표창

광양제철소가 1월 16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에 앞장선 포스코파밀리를 표창했다. 이번 표창은 2011년 하반기 우수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포스코파밀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체 수상자는 설비기술부봉사단, 영안부 덧살나눔회, 일안부 꿩안개봉사단, 꿩자사(포스코엠릭), 외주파트너사(타임씨)가 선정됐다. 개인 상은 체경부 이종양씨, 우관부 채영일씨, 풍질기술부 이운태씨, 외주파트너사(자엔텍) 정순기씨, 조석혁씨, 생씨, 드림파크 육수조씨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들은 개인 혹은 단체로 시

간을 뜨개 의류로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하천이나 문화재 주변의 환경정화활동에도 앞장서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수호 꿩안개봉사단장은 “지역 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을 대내외적으로 격려해주는 것 같아 기쁘다. 우리 봉사단 가족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외주파트너사 단체 및 개인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지난해 12월 26일 외주사(CBO)정보교류회에서 진행했다.

이보경기류아카데미

포스코파밀리 대상 1월 31일까지 www.poscocway.net 접속

물류혁신 아이디어를 찾아라

포스코가 물류 혁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외법인·봉사자·외주파트너사 등 포스코파밀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물류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내용은 포스코파밀리(사)의 물류비 절감, 물류로 축산과 물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더불어

오상호 sangwook@posco.com

사랑받는기업 연구포럼 킥오프

SPICEE 부문별 위원 등 참석… 목적·향후 운영방안 논의

포스코가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2012년 첫 활동을 시작했다.

포스코는 1월 13일 포스코 서울아카데미에서 제1회 사랑받는기업 연구포럼을 열었다.

이번 연구포럼에는 김상양 부사장과 김준만 포스코경영연구소장, 권양설 한경아카데미원장, 박오수 서울대 교수, SPICEE 부문별 위원 10명 등이 참석해 사랑받는기업 연구포럼의 목적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포스코가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영활동을 추진하는 국내 선도기업이 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활동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랑받는기업 연구포럼에 참석한 연구포럼 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연구하는 SPICEE 부문별 교수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SPICEE는 Society(사회), Partner(협력업체), Investor(투자), Customer(고객), Employee(직원), Environment(환경)의 약자로, 각 분야는 1명 내지 2명의 전문가가 속한다.

사랑받는기업 연구포럼 위원은 정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수 학술저널에 등재하거나 공동집필 저서를 출간한 학자이다. 포스코는 사랑받는기업 연구포럼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랑받는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김지윤 zjy@posco.com
(자료=사랑받는기업추진시국)



포스코는 1월 13일 서울아카데미에서 제1회 사랑받는기업 연구포럼을 열었다. 사진은 김상양 부사장이 회의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지적재산 스마트통합관리시스템 가동

포스코가 1월 16일 춘천안에서 포트지적재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포스코가 2006년 개발한 특허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직원들이 자적재산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리뉴얼한 것이다.

포스코는 1994년 철강업계 최초로 온라인 특허관리를 시작했다. 2006년에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 사우관리까지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특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특허통합관리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스마트통합관리시스템에는 공개특허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

을 제시하는 특허통합분석 기능과 다른 회사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분석해 포스코의 영향도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가치평가 기능이 추가됐다.

포스코는 새롭게 개발된 스마트통합관리시스템이 기존 단점과 보완하고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특허관리를 접목할 수 있어 자적재산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스마트통합관리시스템을 포스코파밀리 전체의 자적재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해 포스코파밀리의 자적재산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지윤 zjy@posco.com
(자료=기획전략그룹)

포스코미술관 소장 미술품

POSCO Art Museum Collection

2012.1.18(WED)-2.15(WED)

한~금 9:30~20:00 일 10:00~15:00(15:00~16:00)

